“하암...”

아우, 졸려.

학생회 활동 때문에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피곤하다.

끝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자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한 건지.

등굣길에 하품이 계속 새어 나온다.

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멀쩡한 거지. 다들 별로 졸려 보이지도 않던데.

그런 생각을 하며 걷다가 앞에서 익숙한 흰 패딩이 보였다.

채아람의 패딩 같긴 한데 터덜터덜 힘없이 걷는 게 좀비 같다.

저거 채아람 맞나?

<<터벅 터벅>>

“......아아. 안녕하세요, 선배애.”

채아람이긴 한데 눈이 퀭하고 피곤함에 찌든 채아람이다.

“너 괜찮아? 되게 피곤해 보여.”

“제가 아침잠이 많아서요….”

“약간 못 잤거든요…. 하암...”

“어제 학생회 끝나고 아예 못 잤어?”

“조금은 잤어요.”

“한...4시간?”

“어제 학생회 끝나고 바로 안 잤어?”

“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?”

“이것만 하고 자야지. 저것만 끝내고 진짜 자야지. 그러다가 시간을 봤더니.”

“4시였어요….”

아. 그럴 때가 있지.

뭐 하나만 하고 끝내려다가 하염없이 길어지는 일.

나도 핸드폰으로 인터넷 서핑하다 보면 거대 파도에 휩쓸려서 하염없이 하곤 하니까.

“오늘 피곤하겠다.”

“괜찮아요. 좀 졸리긴 하지만...”

“하아아암.....”

눈물이 맺히게 하품하는 걸 보면 진짜 피곤해 보인다.

“쉬는 시간에라도 좀 자둬.”

“...우리 반 애들이 가만히 안 둬요.”

“온갖 장난치면서 깨워댈 텐데. 절대 못 자요.”

“...나한텐 안 그러던데.”

“네?”

“아, 아냐.”

<<터벅터벅>>

채아람은 학교까지 반쯤 잠에 취해서 해롱해롱 걸었다.

학교까지 오긴 왔는데 얘 괜찮은 것 맞나?

“그럼 선배...학생회에서 봐요.”

...불안해서 안 되겠다. 나는 가려는 채아람을 불러세웠다.

“커피 마실래?”

“...커피요?”

자판기에서 아메리카노 캔 커피 2개를 뽑았다.

죽어도 아이스 커피인 사람들을 위해서인지 겨울인데도 무자비하게 차갑다.

이거면 잠은 확실히 깨겠네.

“자. 네 거야.”

“......”

“안 받아?”

“......”

채아람 이 녀석.

선 채로 자고 있어...?

용케 넘어지지도 않고 고개만 살짝 꺾인 채로 서서 자고 있다.

맨 목을 무방비하게 드러낸 채로.

그리고 내 손에 들린 건 얼음장 같은 캔 커피.

“...이건 복수다.”

그래. 당한 게 많잖아, 나.

평소에 쟤가 나한테 한 장난이 얼마나 많은데.

내 차례다…!

나는 바톤 터치하듯 캔 커피를 채아람의 목에 갖다 댔다.

“꺄아아아아아!!!!”

스프링처럼 채아람이 튀어 오르고는 어리둥절하게 날 쳐다봤다.

“뭐, 뭐예요!?”

“...잠 좀 깼어?”

“......아하.”

채아람의 눈에서 잠기운이 사라졌다.

복수도 하고 잠도 깼으니 잘됐네.

“근데 선배도 좀 졸려 보이네요.”

어?

눈빛에 잠기운 대신 장난기가 한가득하다.

캔 커피를 흉흉하게 든 채아람이 천천히 다가온다.

“선배.”

“제가 잠 깨워드릴게요.”

...

...배에 얼음 같은 캔 커피가 닿는 건 상상 이상으로 차가웠다.